제사 문제 대안, 講度서 찾다

현불논단



성제 박준석 교수
위덕대 불교문화학과

제사는 인류의 오랜 유산이다. 농부는 풍작을 빌어 농경제를 지냈고, 비 오기를 염원하면서 기우제를 지냈다. 또 뱃사람은 선박의 무사항해와 풍어를 기원하는 용왕제를 지냈다. 우리가 즐겨 먹는 '설렁탕'도 사실은 첫 쟁기질 후에 소를 잡아 선농단에서 제사를 지낸 후에 마을 사람들과 한 그릇씩 나눠 먹던 것이 그 유래라고 한다. 부처님께서는 제사를 부정하지는 않으셨던 듯하다. 대대로 제사에 소홀함이 없었던 밧지국 사람들을 칭찬하신 일이 〈장아함경〉에 기록되어 있어 그것을 알 수 있다.

다만, 두 가지 유형의 제사에 대해서는 그것을 옳지 못한 일이라고 못 박으셨다. 첫째는 가축을 잡아 짐승의 피를 내어 귀신에게 비는 비윤리적인 제사다. 이런 제사는 털끝만큼도 이익이 없고 오히려 죄업만 더욱 깊고 무겁게 할 뿐이어서 잠시 자비심을 내는 것만 못하다고 따끔하게 법을 설하셨다. 둘째는 지혜롭지 못한 제사다. 예를 들어 상아(象牙)나 쇠뿔에 새긴 인감(印鑑)이 길상을 가져온다고 믿는 이들이 있다. 길상한 존재에 빌어 공덕을 얻을 수만 있다면 그보다 좋은 일이 어디 있겠는가? 그러나 잘 생각해 보라. 소는 끈에 매여 채찍질을 견디면서 밭을 경작하거나 무거운 짐차를 끈다. 피로와 갈증, 굶주림이 늘 몸에 덕지덕지 붙어 있다. 쇠뿔이 길상한 거라면,

부처님께서 제사 부정하진 않아도
가축 잡거나 어리석은 제사는 지적
본래 취지 벗어난 형식 돌아봐야

왜 그 뿔을 달고 사는 소는 정작 고통에서 해방되지 못하는 걸까? 말이 안 된다.

옛날에는 정화수 한 그릇을 떠 놓고 빌더라도 대충 떠낸 물이 아닌 정성스럽게 길어낸 물이어야 했다. 말 그대로 죄를 없애주고, 마음의 때를 씻어주는 순수한 첫물이니만큼, 새벽 일찍 일어나 샘물을 긷는 정성이 하늘을 감동시킬 수 있다고 믿었던 것이리라. 보기에는 그냥 물 한 그릇이지만, 알고 보면 깊은 뜻이 있다. 밀교적으로 보면 월륜(月輪)을 담아내어 법신(法身)과 소통케 하는 금강살타(金剛薩埵)의 현신으로도 볼 수 있는 거다. 천 강에 물이 있으면 천 강에 달이 뜰 수 있다. 뭐든 믿음과 정성, 마음이 중요한 법이다.

제사를 꺼리는 지금의 추세는 제사 자체에 그 문제가 있다기보다, 본래의 취지를 벗어나 형식에 얽매이는데 그 심각성이 있다. 진각성존 회당대종사는 시대의 변화에 따른 제사의 어려움을 미리 내다보고, 그 대안을 이렇게 제시한 바 있다.

"옛날에는 이웃에 살아서 제사 지내기가 쉬웠지만 지금은 넓게 흩어져서 살아야 크게 살게 되니 각자가 사는 곳에서 강도(講度)하는 것이 크다. 봉건시대는 대소 친척이 한 동리에 살아서 잘되었고 산등성이 너머로 떨어져 살면 못되었다. 현시대는 각각 나눠 살아야 잘된다. 그러니 제사를 지낼 때라도 각각 그곳에서 강도를 하는 것이 조상도 복이 되고 자손도 복이 크다." (〈실행론〉 3-7-6)

*강도(講度)란… 강(講)은 대중이 한자리에 모여 불공하는 것을 말하며, 도(度)란 그 불공의 인연 공덕으로 동참한 사람들 모두가 해탈되고, 인연 있는 이들이 제도된다는 뜻으로 진각종에서만 고유하게 사용하는 말이다.

'안전', 사회적 참사 해결책

세간과 출세간



효록 스님
다르마심리상담명상센터 대표

아들의 장례식 날, 어머니는 고개 숙여 오열하다가 끝내 쓰러져 업혀 나갔다. 故 채수근 해병 영결식의 한 장면이다. 채 해병은 2023년 7월 안전 장비 하나 없이 실종자 수색작전을 하던 중 급류에 휩쓸려 사망했다. 하지만 유족들은 아직도 그의 죽음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알지 못한다.

참사(慘事)란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이 슬프고 끔찍한 일' '참혹한 사건'이다. '참혹'이라는 말에는 '자인하고 무자비한'의 의미가 포함된다. '사회적 참사'라는 말은 재난의 원인이 개인의 잘못이나 불행이 아니며, 한 개인이 그 피해를 감당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사회적 의지와 합의를 담고 있다.

사회적 참사에는 공통점이 있다. 첫째, 사회적 문제이고 둘째, 국가가 무관심하고 무지하며 무능하다는 점이다. 셋째는 정권이 회피한다는 점이고 넷째는 피해자 권리 침해와 추가희생이 보인다는 점이다. 다섯째는 문제가 반복된다는 점, 여섯째는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상당한 기간 고통을 겪는다. 일곱째는 사건의 진실에 도달하는데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린다. 그래서 너무 답답해서 분통이 터질 지경이다.

이태원 참사는 한국에서 발생한 최악의 안전사고 중 하나로 꼽힌다. 올 6월 2일, 10.29 참사가 발생한 지 약 1년 반 만에 국회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통과됐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실체

개인의 심리문제는 사회문제로 연결
정작 사회법은 신체만 신경쓰고 있어
마음의 온전함도 보호받아야 한다

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노력하는 유가족들의 고충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옛 선사는 해결되지 않고 얽힌 마음을 애응지물(碍膺之物)이라고 했다. 대혜 선사는 서장(書狀)에서 이것을 없애면 각(覺)이라고 했다. 정신과 의사 故 이동식 박사는 애응지물을 핵심 감정(Nuclear Feelings)으로 소개하며, 치료자는 내담자의 핵심감정을 빨리 파악하고 그것을 치료해야 정신을 건강하게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핵심감정은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생각과 행동을 부정적으로 지배하는 중심 갈등이자 중심 감정이다.

감정은 외부를 향한 움직임(e+motion), 움직이는 에너지(Energy in motion)로서 생존 프로그램이다. 감정은 보편적인 것이 아니다. 각자의 과거 경험을 바탕으로 뇌가 구성한 것이다. 그래서 문화나 환경 그리고 사회에 따라 다르게 구성된다. 하여 감정의 90퍼센트는 사회적 감정이다. 그러니 개인의 심리적 문제는 사회적 문제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다리를 부러뜨렸다고 고소할 수는 있어도 가슴을 아프게 했다고 고소할 수는 없다. 오늘날 사회법은 신체의 온전함을 보호할 뿐 마음의 온전함을 보호하지는 않는다.

감정은 항상 몸과 연결되어 있고 몸을 통해 표현된다. 그리고 감정은 누구의 명령도 따르지 않는다. 채 해병의 장례식 현장에서 군인들은 부동자세를 유지해야 했다. 하지만 일부 동료들은 주저앉았고 서 있던 병사 중 일부는 울기 시작했다. 채 해병의 어머니는 무자비한 정부를 대신해 아들 같은 동기를 부둥켜안고 토닥여주었다.

우리는 부정적인 감정을 의식적으로 통제할 수 없다. 하지만 안전하다고 느끼기 시작하면 통제할 수 있다. 부정적인 감정은 몸에 저장되어 있다가 조건이 맞으면 움직이는 특징이 있다. 이를 무시하면 대가가 따른다.

社 說

운주사 석불석탑, 세계유산 등재 기대한다

화순 운주사 석불석탑군은 참 신비롭다. 10~16세기 조성된 다양한 석불과 석탑이 산 곳곳에 산재돼 있는데 전해지길 천 개의 불상과 석탑이 있었다고 한다. 신비롭고 신기하기에 독일의 예술 평론가 힐트만은 "천불동은 나를 감동시킨다. 현대의 어떤 예술 작품도 그 만큼 나를 감동시키지 못했다"고 운주사 천불천탑을 극찬했다. 황석영의 소설 〈장길산〉에서 운주사 천불천탑은 민중해방의 미륵성지로 그려진다. 이렇듯 운주사 석불석탑군은 역사적으로, 예술적으로, 신앙적으로 여러 의미를 가지고 있다.

지난 2017년 세계유산 잠정목록에 등재된 '화순 운주사 석불석탑군'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한 준비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이다. 지난해부터 종합학술용역을 진행해온 화순군은 올해부터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되는 데 탄탄한 기반을 마련하고 연구의 밑바탕을 다지기 위한 다양한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지난 5월 31일에는 '운주사 석불석탑군의 세계유산적 가치 규명'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했으며, 오는 6월 20~21일에는 석불석탑군의 역사 문화적 가치는 물론 세계유산적 가치를 조명하는 국제학술대회도 열린다.

화순군은 오는 9월 국가유산청에 '운주사 석불석탑군'을 유네스코 세계유산 우선등록목록으로 신청한다는 계획이다. 도선 국사가 창건한 신비의 도량 천불천탑 운주사가 세계인에게 영감을 주는 도량이 되길 기대한다.

불교영적돌봄가협회 창립에 부쳐

불교호스피스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협회가 창립됐다. 불교영적돌봄가협회는 6월 4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창립식을 개최하고 병원과 호스피스 완화의료 영역에서의 불교적 영적돌봄을 발전시키는 데 매진키로 결의했다.

협회가 창립한 것은 정부가 2028년까지 호스피스 전문기관을 현행 2배 수준으로 늘린다는 계획에 더해 '영적 돌봄'의 제도화를 발표했기 때문이다.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가 지난 4월 심의·의결한 '제2차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에 따르면 호스피스 전문기관을 2023년 기준 188곳에서 2028년 360곳으로 늘릴 계획이다.

정부는 '이용자 선택권 보장 확대'라는 명목 아래 올해부터 임종기 환자와 가족을 위한 영적 돌봄 및 사별 가족 정서적 지지 프로그램 개발에 나선다. 영적 돌봄 프로그램의 표준화 매뉴얼 개발도 추진하는데, 성직자 중심의 제한적 서비스였던 영적 돌봄이 일반 호스피스 인력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보편적 서비스로 확대되는 셈이다.

그렇기에 불교영적돌봄가협회의 창립은 매우 시기적절하게 잘 이뤄졌다고 평가할 수 있다. 초대 협회장을 맡은 본각 스님은 "협회는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전문적인 소양을 갖춘 영적 돌봄가를 양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취임 일성을 밝혔다.

호스피스 영역에서 이웃 종교보다 후발주자인 불교계가 협회 창립을 계기로 인프라 구축과 전문 인력 양성에 박차를 가할 수 있길 바란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1994년 10월 15일 창간
대표이사 : 혜도 스님 총괄국장 : 박재완 편집인 : 신중일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 광고국 (02)2004-8204 / FAX (02)737-0698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마하몰 www.mahamall.co.kr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 산 지 사 : 010-5640-8883
충 청 지 사 : 010-8341-0560
경 남 지 사 : 010-3860-7008
광주전남지사 : 010-2629-1508
대 구 지 사 : 010-6780-9190
영 주 지 국 : 010-9373-3778
전 북 지 사 : 010-8642-7733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구독료 : 1개월 5천원
등록일:2007년 3월 9일 · 등록번호:서울다 07641(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종 단 공 고

재)대한불교일붕선교종

일붕존자 28주기 추모다례재

재단법인 대한불교 일붕선교종을 창종하시고 세계불교 초대법왕을 역임하시면서 세계 곳곳을 종횡무진하시며 오직 불교포교와 세계평화, 민족 평화통일의 큰 뜻을 이루기 위해 평생을 바치신 서경보 일붕존자의 제28주기 추모다례재를 불기2568(2024)년 6월 14일 금요일(음5월9일) 오전 10시 30분에 총본산 일붕선원에서 봉행하고자 하오니 종도님들께서는 참석하시어 자리를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불기 2568년(2024) 6월 12일

일붕선교종 총무원장 혜일 스님

대한불교삼론종

종도 모집 안내

대한불교삼론종은 고구려 삼론종의 맥을 이어가고 있는 한국불교 대표 종단입니다. 제6세 종정 혜승 스님과 제10대 총무원장 해불 스님을 중심으로 2023년 삼론불교대학을 개교하고 전법 포교에 나설 승단 양성에 역주하고 있으며, 중국 삼론종 발원지 및 사찰들과 결연을 맺고 자비실천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전법 포교에 함께 나설 종도를 모집합니다.

불기 2568년(2024) 6월 12일

대한불교삼론종 총무원장 해불 스님

사)여래불교조계종

종도 모집 안내

사단법인 여래불교조계종은 시대가 요구하는 올바른 불교 모습을 정립하고자 공익법인 여래불교조계종을 창종하고 활발한 활동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불법홍포에 앞장설 전국 종도 스님을 모집하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010-6219-4757

불기 2568년(2024) 6월 12일

여래불교조계종 총무원장 덕평 스님